

불교계 사이트, 갈 이유 없다

운영 마인드 결여, 네티즌 외면해... 양적·질적 이웃종교에 모자라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불교언론문화상을 수상한 '나무아미타불' '연화실' '송광사 홈페이지' '정토회'와 우학 스님이 운영하는 카페 '불교인 드라마'와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들이 운영 중인 페이스북 부루나.

인터넷 발달에도 불교계 웹포교 현실은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M(Mobility)으로 스마트폰을 위시한 기기의 발달은 인터넷이 생활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의 불교계 웹포교 현실은 참담하다. 이러한 상황은 불교계 웹사이트 현황을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록 기준으로 2001년 347개였던 불교계 사이트는 2011년 현재 1652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2001년 4119개에서 2011년 13375개로 종교관련 사이트의 전반적인 증가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2001년 3594개였던 개신교계 사이트는 현재 만 1326개에 달해 양적인 열세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 발달에도 불교계 웹포교 현실은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M(Mobility)으로 스마트폰을 위시한 기기의 발달은 인터넷이 생활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의 불교계 웹포교 현실은 참담하다. 이러한 상황은 불교계 웹사이트 현황을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록 기준으로 2001년 347개였던 불교계 사이트는 2011년 현재 1652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는 2001년 4119개에서 2011년 13375개로 종교관련 사이트의 전반적인 증가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2001년 3594개였던 개신교계 사이트는 현재 만 1326개에 달해 양적인 열세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활용은 중요하다. 포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뤄지는데 인터넷은 물리적 제한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포교는 전국 각 사찰과 불교 기관에 시급하지만 이들 웹사이트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다.

서재영 연구원 책임연구원(페이스북 부루나 운영자)은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

불교계 사이트 1652개 · 개신교는 1만 1326개
사찰 중심 콘텐츠로는 방문자 늘리기 힘들어

문제는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다. 웹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계 사이트의 다수는 각 종단 및 기관, 사찰, 홈페이지가 1034개로 63%를 차지한다. 경전 및 불교 음악 등 전문사이트는 105개로 7%가 채 되지 않는다. 포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불교문화콘텐츠가 미미한 점은 '죽어있다'는 평가의 주원인이다.

이웃 종교와 비교해 보면 불교계 사이트는 더욱 열악하다. 특히 교회 사이트는 1만 여개가 넘는다. 성격도 불교와 크게 다르다. 바로 설교를 위주로 한 구성이다. 교회 사이트는 목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조계종 전산정책특보 정범 스님은 "개별사찰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야겠다는 주지 스님의 마인드가 절실하다"며 "인터넷 중무행정 전담직원 등 인터넷 정보화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있을 때 스마트폰 1000만 시대로 대변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에서 사찰은 대부분 산 중에 위치해 인터넷의 활용은 젊은 세대에 대한 포교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임장수 이음컴넷서비스 대표(전 교정인불자연합회장)는 "일선 포교현장에서

일 것이지만 결국에는 불자들의 마인드 문제"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홈페이지는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는 곳으로 이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방향이 흐르고 있다. 규모 있는 사찰기관에서는 웹 담당자가 의지를 갖고 SNS까지 담는 등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계총림 송광사 홈페이지(http://www.songgwangsa.org/)는 사찰 사이트가 갈 길을 제시한다.

특별기고

포교에 전략적 마케팅 도입 시급

"마케팅과 불교적 사고"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미래의 경영과 마케팅 이념은 인간중심의 불교적 동양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서양경영패러다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 일기도 하는 때에 기업인과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산 글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던 서양의 자본주의는 기독교문화와 윤리에 바탕을 두고 발전을 해왔으며, 이런 문화와 윤리가 서양식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뿌리가 바로 서양기업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나라대로의 경영이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정신없이 그들을 뒤쫓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여 사찰경영이나 포교를 위한 마케팅 모델을 만들어 콘텐츠와 하드웨어를 좀더 시대에 맞는 진보된 불교로, 보다 생동감 넘치는 불자들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불교계는 물론 사찰경영과 포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이 성공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경전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찾아내서 재미있고 쉽게, 시대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야만 합니다. 스토리텔링이란 경전에 나오는 여러 말씀을 에피소드속으로 풀어놓아서 부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삶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도 우리문화에 바탕을 두지 않은 서양식 경영모델만 갖고는 글로벌 시대에 앞서가는 기업을 따라가기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서양의 기업들도 동양의 전통적 정신문화인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경영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과 중국진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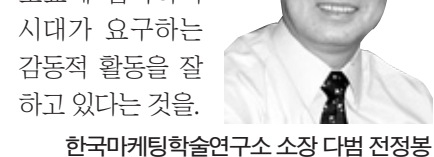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에 불교를 받아들인 이래 그것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내세울 만한 우리의 문화유산은 그 대부분이 불교에서 왔으며, 우리의 의식구조, 언어, 풍습, 사상에는 불교적인 것이 깊이 깔려있습니다. 불교는 우리문화의 아주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은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으로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지혜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어느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사찰경영은 물론 포교마케팅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불교의 포교는 사찰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교의 정신문화와 가치를 경영과 마케팅으로 수용함으로써 미래의 불교인 양성은 물론 불교와 불교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사찰경영이나 포교에도 전략적 마케팅 활동이 더욱 더 요구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찰경영이나 포교의 기본성격이 되어야 하는가?'의 해답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을 마케팅활동으로 수용 전개하기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찰경영과 포교에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찰이나 포교원에 대해서 '왜 성공적으로 가고있는가?'를 깊이 관철 분석을 해 보면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끌어왔던 불교 경전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 소장 다법 전정봉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내인파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 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부출가 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징 계 공 고

성명 : 이병근 (불명 : 도천)

승적번호 : 1799-10366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550-5번지 보명사

성명 : 손동주 (법명 : 도봉)

승적번호 : 1694-10089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흥평리 780번지 정토사

성명 : 이성식 (법명 : 운학)

승적번호 : 1595-10145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 229번지 황룡사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규정원법 제4장(징계) 제19조1항 중도의 체면과 위신상에 실추되는 행위가 있는 자.

제19조 2항 중도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는 정당한 중무시행상의 명령에 불복 혹은 비방의 행위가 있는 자.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므로 3년의 중도분한상의 일체권리를 정지하는 조치에 처한다.

2011년 3월 21일

대한불교원효종 규정원
 규정원장 직무대행 규정부장 임우섭(성암)